한국판뉴딜 대전환
교육부

유해물질 없는
쾌적한 모듈러교실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KS 자재 사용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해요!

일반건물 수준의
단열과 차음, 창문, 조명, 냉난방기 등
일반교실과 동등한 환경에서 공부해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기준

독성물질 방출이 없는
친환경, KS자재를 사용해서
유해물질 걱정 없어요!
설치 후 공기질 검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기준

12 vol.473
2021 DECEMBER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부총리 인터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일상회복 선제적 추진, 교육회복에 집중 지원할 터"

09 네 꿈을 펼쳐라
충남 금산동중학교 환경동아리
'반딧불을 지키는 삼동이들'

34 정책을 말하다
교육기부 10주년 성과와 과제

46 교육[illegible]
교사 유튜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교육부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73 **2021 DECEMBER**



20

특별기획

2021년 교육부, 일상회복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에 대응하여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난 6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교실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손을 회복하는 한편,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올 한해 교육부가 해온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키워드로 보는 2021 교육
① 등교확대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다
②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③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교수·학습 혁신
④ 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 전면 도입 향한 한걸음
⑤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발족… 준비단계부터 국민 의견수렴
⑥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로

34

정책을 말하다

교육기부 10주년 성과와 과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교육기부는 10년간 기업·단체의 사회공헌과 대학생·개인의 지식·경험 전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동안 성과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소개한다.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전국 유·초·중·고의 전면등교를 앞둔 11월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유 부총리가 학교의 일상회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촉발한 미래교육 대전환, 고교학점제 시행,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진행해온 교육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12
vol.473 **2021 DECEMBER**



09


12



50

04 **부총리 인터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일상회복 선제적 추진,
교육회복에 집중 지원할 터"

20 **특별기획**
2021년 교육부,
일상회복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다
키워드로 보는 2021 교육
① 등교확대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다
②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③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교수·학습 혁신
④ 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 전면 도입 향한 한걸음
⑤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발족…
준비단계부터 국민 의견수렴
⑥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로

09 **네 꿈을 펼쳐라**
금산동중학교 환경동아리 '반딧불이를 지키는 삼동이들'
삼동이랑 반딧불이랑 금산에 살어리랏다

12 **꿈이 영그는 현장**
전남 강진작천중학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공간혁신

16 **교실혁명**
2021 자유학기 수업콘서트
"학생 중심 자유학기 위한 밑거름이 되자"

34 **정책을 말하다**
교육기부 10주년 성과와 과제

39 **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①
경남 고성, '온 마을이 학교'

42 **교육웹툰**
우리 함께 학교의 일상회복을 준비해요

44 **이달의 교육뉴스**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外

46 **교육포커스**
교사 유튜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50 **진로직업인**
도시재생전문가_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발길 끊긴 개항로, '사람'을 담은 도시로 되살아나다

54 **일상의 쉼표**
열두 채의 집을 품은 신안의 섬티아고

58 **이야기 인문학**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날,
인류는 우주로 떠나게 되었다

61 **명예기자 리포트**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로 탐구생활', 나도 이제 예술가! 外

64 **숫자로 읽는 교육**
2004년 & 2021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일상회복 선제적 추진, 교육회복에 집중 지원할 터”

글 _ 이순이 편집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1월 17일, 깊어지는 가을날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 부총리는 문민정부 이후 최장수 교육부장관으로서 지난 3여 년간 ‘K-에듀파인’,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등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무르익어 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다.

이제 유 부총리의 시선은 코로나19라는 현안을 넘어 미래를 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그려나가고자 한다.

유 부총리는 그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다.”라고 역설해왔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 전면등교의 지속 여부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교육 정책들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현안과 더불어 미래교육에 대한 유은혜 부총리의 생각을 들어봤다.

K-에듀파인 도입, 고교 무상교육 성과로 꼽아

취임 초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논의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숨돌릴 틈 없이 달려오는 동안 임기 3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 물었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고 유치원 3법을 개정했으며,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올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당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투명한 회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장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성된 고교 무상교육도 초·중·고까지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통해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또한, 유 부총리는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완성되는 정책이 어디 있을까? 유 부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수용성 없이는 말에 그치고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갈등이 생기기에 항상 교육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직원에게도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해 학생 백신접종 불안감 해소

먼저, 교육계의 모든 관심이 안정적인 전면등교에 쏠려 있다.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교육가족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보아 '22년 새 학기부터는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난 6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전면등교를 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동해 밀집도 2/3, 3/4까지 등교해 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 후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실시, 교육활동 전반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학생 백신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해 PCR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방과 후에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방역실태 점검을 계도하는 생활방역 지도점검단도 운영한다."라며 "학교 안팎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교 내외의 취약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접종효과 분석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5.8%이며, 중증예방효과와 사망예방효과 또한 높은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국내 고3 접종효과 분석결과와 미국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효과분석에서도 예방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백신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나 해외사례를 분석,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까지 모든 교육자원·예산 투입하여 교육회복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이에 따른 학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 맺음이 되지 않아 사회성 발달이 어려워지거나 심리·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라며 "결손을 회복하지 못하면 전 생애 소득의 3% 이상이 감소된다는 OECD 분석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1년 7월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21년도 하반기부터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컨설팅을 즉시 추진하고 협력수업 및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예비교사인 교대와 사범대 대학생들이 초·중·고교 학생의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에 집중한다.

유 부총리는 "학습결손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학교 교사, 예비교원 등 가능한 모든 교육역량 및 예산을 투입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육계에서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교교육 혁신 측면에서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교육의 변화와 학점제 시행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고교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고교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가도록 맞춤식으로 한명 한명의 개별학습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과목의 내용·위계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 구조를 개편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며, 미이수제 도입에 따른 책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무선망 구축 등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유 부총리는 우선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25년까지 목표로 삼았던 학교 무선망 설치가 3~4년 앞당겨지게 됐다."라며 "이미 초·중·고 일반교실에 무선망 설치가 완료됐으며, 내년 초에는 특별교실까지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난 7월경 484개의 대상 학교를 선정·발표하고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하여 원하는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 중이다. '22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빠르면 '23년부터 대한민국 제1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래학교는 5년간 약 1,40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교수·학습 혁신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의 지향점은 '지역과 동반 혁신하는 대학'

한편,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0년 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교수·학습
혁신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에는 대학 3곳 중 1곳이 폐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방대학은 청년유출을 막는 댐이자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써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의 구심점이다. 그동안 대학별로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공유, 협력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마련해서 대학혁신을 이루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지향점이 '지역과 동반 혁신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교육부는 '20년부터 '지역혁신 플랫폼'과 '지역단위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지역 핵심분야 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있다.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학창 시절 꿈은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눈 맞춤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올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유 부총리는 자신도 고3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진로를 결정할 만큼 인생에서 선생님의 영향이 컸노라 이야기한다. 때문에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육에,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교육현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유 부총리는 "학교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교육가족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보아 '22년 새 학기부터는 일상으로 회복되어 미래교육으로 한걸음 전진한 것을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산동중학교 환경동아리 '반딧불이를 지키는 삼동이들'

삼동이랑 반딧불이랑 금산에 살어리랏다

금산동중학교 환경동아리 '반딧불을 지키는 삼동이들'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리더'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2017년에 만들어졌다. 환경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에 환경지킴이 활동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은 자존감을 회복하며 '환경리더'로서 한층 성장하고 있다. 하천의 생물 다양성과 보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금산천의 수질측정과 생태조사를 해오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다.

글 _ 이순이 편집장



금산동중학교 환경동아리 '반딧불을 지키는 삼동이들'은 하천의 생물 다양성과 보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금산천의 수질측정과 생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1 월 1회 고기 없는 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삼동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131 채식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 3 금산천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삼동이들

4 삼동이들이 금산천의 생태조사 후 제작한 생태지도





금산천은 얼마나 깨끗할까?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인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굽이굽이 흘러 금산천을 지나고 이 물은 다시 봉황천과 만나 저 멀리 서해바다로 연결된다.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금강수계도를 보고 있으니 금강 상류에 자리한 금산천의 수질이 궁금해진다.

금산동중학교 환경동아리 '반딧불을 지키는 삼동이들(이하 삼동이들)'은 하천의 생물 다양성과 보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금산천의 수질측정과 생태조사를 하고 관찰 결과를 생태지도로 만들고 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1월, 삼동이들이 하천의 수질측정과 환경정화를 위해 금산천에 모였다.

삼동이들은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금산천의 수소이온농도 지수,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등 수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서로 역할을 나눠 금산천의 시료를 채취하고 조심스레 시약을 넣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1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 수치를 확인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겁다. 문종신(3학년) 학생은 "지난번에 수질 검사할 때는 전반적으로 물이 깨끗했고, 질소만 수치가 다소 높았는데, 오늘은 질소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라고 말한다. 삼동이들은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주변 농가로부터 비료(질소)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수질측정을 마친 삼동이들은 하천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꼭꼭 숨겨진 쓰레기도 찾아 분류해 본다. 김하은(2학년) 학생은 "천내습지에 갔을 때 어부가 낚시하다 버린 쓰레기부터 놀러 와서 먹고 무책임하게 버린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나부터라도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마을에 홍보도 열심히 하면 금산천을 1급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의욕을 불태운다.

금강유역환경청 국가환경교육지원단 소속의 신영옥 강사는 "측정한 시점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지는데, 금산읍을 지나는 하천이다 보니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나 날씨의 영향에 의해 2~3급수가 나오기도 한다. 상류에는 1급수 생물도 살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금산의 환경지킴이!

'반딧불을 지키는 삼동이들'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리더'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2017년에 만들어졌다. 이혜영 교육복지사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아이쿱생협, 충남대전녹색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수질, 생물 다양성, 먹거리, 생명윤리 등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산천 수질측정과 생태조사 외에도 온라인으로 환경동아리를 운영하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방법을 공유해 왔으며, 올해에는 분리배출 원칙을 홍보하고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부 학교환경동아리 부문에서 2년 연속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사회의 '환경리더'로서 삼동이들의 활동폭도 커지고 있다. 올해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삼동이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131 채식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1명의 실천과 홍보로 이웃 3명의 1주일 1끼를 채식으로 변화시키자'라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채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채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채식 요리를 만들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함께 감상하며 황윤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채식 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채식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며 북토크도 진행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금산동중학교는 지난 6월부터 월 1회 고기 없는 급식을 실천하고 있다.

삼동이가 '삼동쌤'이 되었다!

한편, 이혜영 교육복지사는 삼동이들이 청소년 '환경리더'를 넘어 청소년 환경교육 강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삼동쌤' 양성에도 열정적이다. 강의안 작성, PPT 자료 제작, 발표 시연 등 환경교육 강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가르치며 삼동이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내 환경생태교육 담당 선생님이 모인 연수에서 문종신 학생과 허은선 학생이 각각 '기후변화와 채식',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해 강연해 선생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허은선(2학년) 학생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활동하며 분리배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라며 "투명 페트병은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재활용가치가 높다. 작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이 많다. 선생님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강연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한다.

문종신 학생은 "복지사 선생님의 권유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발표를 마쳤을 때 나의 한계를 부수고 한 단계 올라선 느낌이었다.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나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한다.

질 높은 환경교육에 환경지킴이 활동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앞장서는 등 '환경리더'로서 한층 성장하고 있다.

전남 강진작천중학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공간혁신

교실이 다정하다고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 쏙 들어가 숨으면 나만의 공간이 되는 텐트, 창가 가득 채운 초록빛 식물이 이질감 없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조금은 어설프고 손때 묻은 작품과 운동장에서 주운 솔방울, 돌멩이, 들꽃 등 무엇이든 장식이 되는 복도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 집에 놀러 온 것만 같았다. 다정한 학교가 품을 내어주는 곳, 전남 강진작천중학교(교장 김우수)에 다녀왔다.

글 _ 양지선 기자



교실 뒤편 소파에 앉은 모습이 집처럼 편안해보이는 강정희 교사와 강진작천중 3학년 학생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권보아, 김은숙, 강윤희 학생

"학교에 오면 편안하고 포근해요. 식물이 많아서 왠지 공기가 깨끗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예쁜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을걸요?" 지난 11월 4일, 강진작천중에서 만난 3학년 보아는 학교 자랑을 해달란 말에 이렇게 답했다. 같은 반 친구인 은숙이와 윤희는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반 청소하면서 이곳저곳을 꾸민 게 제일 즐거웠던 기억"이라며 "졸업해도 마음은 학교에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거들었다.

전교생 20명의 작은 학교인 강진작천중은 겉보기엔 평범한 학교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애정 어린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는 따뜻한 공간이 반긴다. 3학년 세 학생이 쓰는 교실은 더욱 특별하다. 우선 교실 뒤편에 소파와 텐트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사뭇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편하게 앉아 책을 보거나, 텐트 안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한다.

다양한 모양의 책상도 눈에 띈다. 수업 시간에 듣는 개인용 책상 세 개 이외에 모둠 책상, 원탁, 소파 앞의 좌탁, 시를 읽는 책상 등등. 덕분에 교실 그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앉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이좋게 둘러앉아 담소를 나눌 수도 있었다.

공간이 바뀌니 아이들도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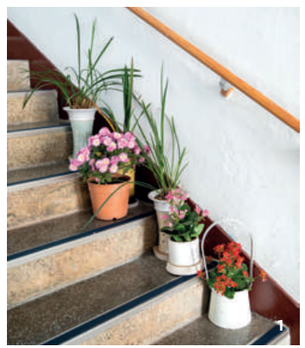
이렇게 학교를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건 3학년 담임이자 국어를 가르치는 강정희 교사의 솜씨였다. 그가 공간을 꾸미게 된 계기는 "아이들은 못 바꿔도, 공간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간이 바뀌니 아이들도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삭막하다는 느낌을 주로 받아요. '학교에 주인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새 학교로 전근하면 우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정리하고 꾸미는데, 신기한 건 공간이 바뀌니 아이들도 행동이 달라졌어요. 더러운 게 있으면 주워서 버리고, 스스로 사물함을 정리하고, 집에서는 냉장고를 정리했다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여주더라고요."

예쁜 공간에 가면 행동도 예뻐진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학교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강진작천중도 그렇게 공간이 다듬어졌다. 공간혁신을 위한 예산은 따로 필요 없었다. 단지 애정 어린 손길이 필요했다.

학교에 오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곳, 중앙현관부터 달라졌다. 으레 보게 되는 초록색 게시판, 트로피, 역대 교장선생님들의 사진 대신 자리를 차지한 건 예쁜 식탁보가 깔린 원탁, 명화, 꽃과 나뭇가지(산에서 대충 주워온 듯한), 인형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이다. 교실로 가는 계단과

1 계단 한 편을 채운 화분들

2 중앙현관에는 예쁜 식탁보가 깔린 원탁, 명화, 꽃과 나뭇가지가 자리를 차지한다.







강정희 교사의 공간 꾸미기 TIP

천(패브릭으로 된 모든 것), 명화 그림(주로 달력에서 오린 것), 식물(꽃, 강아지풀, 조화도 상관없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나 인성교육 플래카드 대신 책상에 천으로 된 매트를 깔고, 꽃병을 가져다 놓자. 지나간 달력에서 오린 그림들로 작은 미술관이 된다. 음식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것보다 접시나 바구니에 담아주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공간을 꾸밀 때도 아이들을 대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3 소파와 텐트, 식물이 이질감 없이 교실을 채우며 따뜻한 느낌을 준다.

4 시를 읽는 책상. 햇빛 가득한 창가에 초록빛 식물과 명화가 더해져 감성을 일깨운다.

5 복도 한 편에 마련된 쉬어가는 나무 벤치와 칸막이 장식장. 창문에 천을 단 것만으로 포근함이 더해진다.

6 하루 세 번, 삼시세끼 독서 시간을 가지는 학생들



복도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 혹은 달력에서 오려낸 예쁜 그림들로 꾸며져 허투루 지나치지 않게 된다. 그림엽서, 종이상자, 보자기, 심지어 달걀판까지 모두 값 안 드는 인테리어 도구다.

미술 시간에는 특히 아이들이 더 정성껏 만들고 그리며 작품활동에 몰입하게 됐다. 수업이 끝나면 무심히 버려지던 작업물이 이제는 학교 어느 곳에 전시될지 모르는 귀한 작품이 된 것이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도, 산에서 주워온 나뭇잎도 좋은 소품이 된다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다.

하루 세 번, 삼시세끼 독서 습관

아이들이 매일 아침 책을 읽는 독서실도 예쁜 소품들로 가득하다. 빈백과 해먹에서 편안하게 누워 볼 수도 있다. '삼시세끼 독서'를 하는 강진작천중학생들은 말 그대로 하루 세 번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놨다. 아침 8시부터 45분간, 점심 먹고 12시 50분부터 15분간, 저녁에는 8시부터 1시간 동안.

보아는 "처음에는 만화책이나 쉬운 책만 읽고 싶었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 읽는 책의 수준도 높아지고 재미를 붙이게 됐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서 교과서 본문에 있는 작품 모음이나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선생님께 추천받아 읽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희는 장편소설인 <내가 되는 꿈>을, 은숙이는 그 전날 목포의 독립서점에서 사온 에세이 <아무튼, 후드티>를 읽고 있었다.

'삼시세끼 독서' 덕분에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체험학습을 나갈 때도 책을 항상 몸에 지니면서 조금의 틈만 나면 독서를 시작할 정도였다. 이렇게 독서가 생활화된 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거두고 나서부터였다. 강진작천중 학생들은 월요일 아침에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금요일 오후에 돌려받는다. 첫 시작은 학부모의 건의였으나, 스스로 문제를 깨달은 아이들도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따랐다.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직접 계산해보게 했어요. 일 년으로 따지면 무려 한 달에 달하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의미 없이 버렸다고 생각하니 아이들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죠. 그래서 휴대전화는 끄고 책을 읽는, '오프폰, 온북(Off Phone, On Book)'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강 교사의 바람은 코로나19가 어서 끝나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밤샘독서를 즐기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따뜻한 집

작은학교의 강점은 전교생이 다 함께하는 외부활동도 비교적 큰 품이 들지 않는다는 거다.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강진아트홀은 학생들에게 제2의 교실 같은 곳이다.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은 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과 전시를 즐긴다. 오페라, 합창, 연극, 무용, 미술품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 아이들을 태우고 함께 나가서 '문화마실'이라고 부른다. 면 소재지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경험과 공부가 된다.

강진작천중에는 편부모, 다문화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학교 의존도가 높다. 또래에 비해 순수하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큰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우수 교장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집이 되어준 것이 바로 열정적인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얘기한다. 김 교장은 "강소기업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학교도 강소학교다. 작지만 그 어느 학교보다 열정적이면서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노력을 알아줘





서인지 무척 착하고 순수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스럽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매일 일과시간 이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 8시 반까지 독서실에서 책 읽기, 토론 등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1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 아이들에겐 집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셈이다.

강정희 교사는 "사람들은 예쁜 걸 보면 '집에 가져다 두고 싶다.'라고 한다. 그 '집'을 '학교'로 바꿨을 뿐이다. 자녀 방을 꾸밀 때 소품 하나하나 공들여 얼마나 예쁘게 꾸미나. 그런데 학교에 와서 삭막한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당사자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으리으리하지 않아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학교에서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신입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자 3학년 학생들이 입을 모았다. "운 좋은 줄 알아~ 다른 학교보다 훨씬 예쁘고, 편안하고,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2021 자유학기 수업콘서트

“학생 중심 자유학기 위한 밑거름이 되자”

글 _ 이경화·김경민 명예기자



1

‘미래교육을 이끄는 교사들의 수업성장 한마당!’을 내걸고 부산, 충남, 전북, 인천 등 네 권역에서 펼쳐진 ‘2021 자유학기 수업 콘서트’가 지난 11월 1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개막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열정과 미래’ ‘희망’ ‘창의’ ‘공유’를 주제로 열흘간 이어졌다. 첫날인 1일에는 미래교육 명사특강이, 2~5일에는 우수수업 사례나눔이 부산, 충남, 전북, 인천 등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8일에는 자유학기·고교학점제 예비학부모 특강이,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스마트 클래스를 위한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의 저자인 김서영 교사와 북토크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자유학기 활동 및 교수·학습 자료와 자유학기 개발 자료가 누리집(www.cnefree.kr)에 탑재되었다.

첫날 개막식은 2021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시상식과 축하공연, 명사특강으로 이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 교육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자유학기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해 혁신된 수업을 고민해 왔던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가 빛난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라며 “자유학기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에서는 경기 이호중학교 윤해수 교사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윤해수 교사는 국어 교과에서 통일 관련 부분을 재구성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원래 구상과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확장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서운중학교 서은파 교사, 연서중학교 이수진 교사, 인천경연중학교 김수진 교사, 대전동화중학교 김철회 교사, 대전외삼중학교 신상윤 교사, 군자중학교 김초은 교사, 화봉중학교 김미성 교사, 탄현중학교 김경아 교사, 신현중학교 박민영 교사, 곤지암중학교 한희옥 교사가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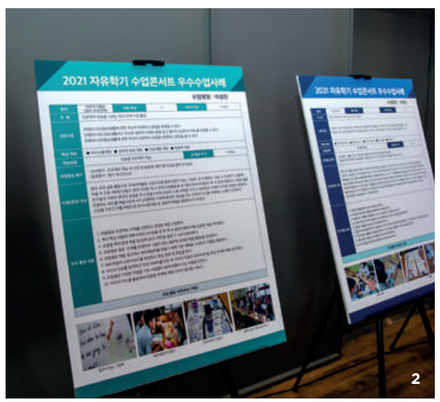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된 현장 인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 및 관계자들은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충청남도교육청 김기매 장학사는 “현장 행사와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5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1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한 ‘2021 자유학기 수업콘서트’가 지난 11월 1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개막했다.

2 ‘2021 자유학기 수업 콘서트’의 우수수업 사례나눔은 부산, 충남, 전북, 인천 등 네 권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3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에서 경기 이호중학교 윤해수 교사(사진 오른쪽)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4 축하공연으로 천안쌍용중학교 학생들의 국악현악 합주공연 영상이 이어졌다.



2



3



4

2021 자유학기 우수수업 사례

"로켓 직접 만들며 우주항공 꿈 키우기"

전남 고흥도화중
김홍균 교사(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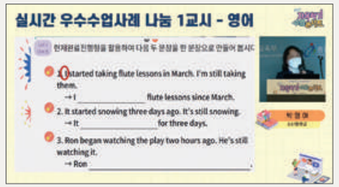
전남 고흥군은 지난 10월 21일 '누리호'가 발사된 지역으로 초·중·고 교사 중심으로 우주항공교과교육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만큼 우주항공에 관심이 많은 곳이다. '우주항공 테마교육'을 자유학기 주제로 선정한 고흥도화중 김홍균 교사는 '구글 클래스룸 연습-우주개발의 의의-로켓의 원리-모형로켓 만들기'의 내용으로 총 17차시 수업을 구성했다. 그는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수업은 미래 사회에 우주항공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 풍선 날리기를 통해 로켓의 제작 원리를 알아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진행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궁금함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은 상대적으로 활동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하는 등의 단점이 발생하지만,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과학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우주항공 개발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싶다는 김 교사는 내년도 누리호 2차 발사에 맞춰 수업을 다시 계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I)를 표현하기"

충남 서산중
박영아 교사(영어)



박영아 교사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며 인위적인 교과서의 예문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자기(I)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기"를 강조하며 학생들이 진짜 I(나)를 써서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했다. 가령 'Prefer A to B' 구문을 배울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 나눠 보고, 교사가 영어 예시문을 제시한 다음 학생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사는 자유학기를 통해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기대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 마을 발전 전략 세우기'. 마을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후 개인탐구활동으로 사례 조사한 것을 영어로 발표하도록 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자의 내용 중 중심키워드를 적도록 하고, 동료평가지를 활용해 경청하도록 했다. 배움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 교사는 "교사는 큰 그림을 가지고 종착역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자유학기와 연계해 2, 3학년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둠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블렌디드 수업"

인천 산곡여중
강은영 교사(국어)



강은영 교사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로할 수 있는 수업주제를 찾다, 입으로 표현하는 '말하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사를 접하고 모둠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수업을 구상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고려해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민주시민'이라는 목표로 세웠고, 민주시민을 작은 범위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정해 수업을 계획했다.

강 교사는 수업계획에 앞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청 누리집, 지역교육청 자료, 교사 SNS 등을 통해 공유된 자료에서 수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고, 수업 준비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업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되짚어보고, 나의 특기를 살려 수업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봤다."라고 했다. 강 교사가 실천한 다양한 모둠 활동의 예로 10분 책 읽기, 이주의 시 읽기, 자존감 높이는 시 쓰기,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 나를 표현하기, 갈등해결을 위한 덕목 제시하기 등이 있었다. 그는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2021 자유학기 수업콘서트' 명사특강에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도 빠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교육부, 일상회복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다

본 내용은 키워드분석 프로그램 '블랙키위'를 이용해 11월 19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01

전면등교

'전면등교'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20년 5월 25일로 당시 단계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면등교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을 기점으로 전월 대비 인터넷 검색량이 5배 증가했다. 6월경에는 6만여 건을 넘었으며, 2학기 개학을 앞둔 8월경에는 9만 건이 검색되는 등 전면등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연령별로 10대 60%, 40대 20%, 30대 8.9%로 학생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KEYWORD

 # 수도권 전면등교 # 2학기 전면등교 # 11월 전면등교

02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의미한다. 올해 7월에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여 격차 해소, 사람투자, 청년지원 등 포용성과 혁신성을 한층 보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은 34.9%로 20대 청년층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1월경 14만 건이 검색됐다. 블로그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생성됐는데, 연관 키워드인 'AI'는 162만 건, '테크' 172만 건, '비대면' 136만 건에 이르는 콘텐츠가 발행됐다.

KEYWORD

 # 한국판 뉴딜정책 # 비대면 # 테크 # AI(인공지능)

03

코로나19 백신접종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26일로, 백신접종을 앞둔 1월경 전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26만 7천 건이 검색됐으며, 블로그를 중심으로 69만 건의 콘텐츠가 생성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것은 4월경으로 이때부터 연관 검색어 '교사 백신접종'의 조회 수가 소폭 상승, 7월에는 정점(1만 6천 건)에 달했다. '청소년 백신접종'은 6월에 소폭 상승하다 12~17세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이뤄진 10월에 조회 수 8만 7천 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연령별로 20대 31.6%, 30대 21.1%, 40대 19.8%, 50대 15.1%, 10대 12.5% 순으로 나타났다.

KEYWORD

 # 코로나19 백신접종률 # 청소년 백신접종 예약 # 교사 백신접종

04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8년 5월이다. 코로나19 촉발로 교육현장은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어, 전국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이 깔리고 원격수업이 보편화 되는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 전환' 키워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조회 수가 늘기 시작해 올 1월에는 21만 4천 건이 검색됐다. 월평균 4만 건(블로그, VIEW 등)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연령별로 40대 28.5%, 20대 24.3%, 30대 22.6% 순으로 나타났다.

KEYWORD

 # 디지털 전환교육 # 디지털 리터러시

05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키워드는 1~3월경 5만 건이 검색되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올해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연관 키워드로는 '고등학교 학비', '고등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이 있으며 블로그를 중심으로 41만 건의 콘텐츠가 생성됐다. 연령별로는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가 40.3%로 가장 검색비율이 높았으며, 30대 25.4%, 10대 10.4%를 차지했다.

KEYWORD

 # 고등학교 학비 # 고등학교 등록금 # 고등학교 의무교육

06

대학혁신

'대학혁신' 키워드는 특정 시기에 조회 수가 증가하기보다는 연간 꾸준히 검색됐다.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늘어났고,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혁신 논의가 뜨거웠다. 연관 키워드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해서 블로그를 중심으로 43만 건의 콘텐츠가, '대학혁신을 위한 빅데이터와 학습분석'은 18만 건의 콘텐츠가 생성됐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에서 각각 31.3%를 차지했으며, 20대 25% 등으로 나타났다.

KEYWORD

 # 대학혁신지원사업 # 미래인재와 대학혁신 # 대학혁신포럼

01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등교확대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다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과 교육 분야 종사자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기에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뒷받침하는 교육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정리_편집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교육부는 올해 학교의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학생들의 등교와 대면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0년 50% 내외에 머물렀던 평균 등교율은 2021학년도 1학기에는 73.1%로, 2학기(10.26. 기준)에는 82.1%로 등교일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11월부터는 3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등 유·초·중등 및 대학의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 학교 방역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과 교육 분야 종사자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기에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뒷받침하는 교육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21학년도 2학기 평균 등교율 82.1%로 회복 중

먼저, 교육부는 1월경,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유치원, 초등 1~2학년 및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학교의 기준도 완화('20. 300인 이하 '21. 400인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의 학교)하였다.

이후 '유·초·중등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과 '2학기 학사운영 방향'(8.9.)을 마련하여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정서·심리상의 교육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학기 개학 전후로 방역 인력을 최대 6만 명 투입하여 4주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학교·교육청의 업무부담을 낮춰 등교확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등교를, 4단계에서는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를 확대해 왔다. 이런 선제적 조치와 등교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유·초·중·고의 평균 등교일은 82.1%로 늘었으나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등교율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비수도권은 94.4%로 전면등교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감염상황이 좋지 않았던 수도권의 등교율은 69.1%에 머물렀다.

'22학년도 1학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과정

지난 11월 1일부터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3주간(11.1.~11.21.)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등교(지역, 학교 특성에 따라 최소 2/3 내외 등교 가능)가 시작됐다. 학교에서는 소규모 활동 중심의 대면활동도 가능하다. 겨울방학에는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되어 교과·비교과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학교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고 전면등교에 대비하여 방역인력·PCR 검사 등은 확대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여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한편, 교육부는 유·초·중등 등교확대에 따라 학교 내 감염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교육 분야 종사자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하였다. 4월 첫주부터 특수·보건교사 등의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유·초·중등 교직원, 고3 학생 및 대입 수험생은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까지 접종을 완료하였다. 10월 중순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도 진행하고 있다. 16~17세(88만 8천 명)의 62%에 해당하는 54만 9천 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12~15세(186만 7천 명)는 23.1%(43만 명)가 접종을 마쳤다. 유아·초등학생은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11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백신접종률(완료)은 79.3%이다. 반면, 9월 17일 기준으로 교육·보육 종사자(유·초·중, 어린이집)의 접종률은 94.8%였으며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대입 수험생의 접종률은 96.1%, 특수·보건교사의 접종률은 96.8%였다. 학교 내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등교확대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육 분야 종사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표1] 유·초·중등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1단계: 준비 기간(11.1.~11.21.)
방역 취약요인 집중점검,방역 인력 확대,학사운영 계획 수립

2단계: 수능 이후(11.22.~)
철저한 방역 조치 기반, 전면등교 시작

3단계: 겨울방학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

4단계: 2022학년도 1학기
전면등교 원칙, 교육활동 전반 정상화

[표2] 교육 분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구 분	접종대상자	접종률(완료)
유치원, 초1~2, 돌봄 (어린이집 포함)	31.3만 명	94.8%
초 3~6학년, 중학교 교직원 (방과 후 강사 포함)	58.4만 명	
고3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64.9만 명	96.1%
대입 수험생	9만 명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1만 명	96.8%

※ 백신접종률 9월 17일 기준

02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정리_편집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에게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교육결손이 확인되고 있다. 2020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생활 행복도 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면활동 감소로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서적 결핍과 사회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결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7.29.)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약 8천억 원 이상을, 시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에 지방비를 약 5.3조 원 이상 투입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가용자원을 적극 투입하고 교육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교과교사의 관찰과 상담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진단도구로 활용하여 학생의 교육결손을 진단하고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신속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장교사 중심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고, 협력수업 및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예비교사인 교대와 사범대 대학생들이 초·중·고교 학생의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학습결손 해소가 필요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학교 교사, 예비교원 등 가능한 모든 교육자원 및 예산을 투입하여 학력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기 위해 단위학교의 위(Wee)센터와 외부상담기관을 연계하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치료비와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 학생의 사회성과 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사제동행 프로그램, 또래 활동, 학급 동아리 등의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등 신체활동을 확대한다.

[표]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방향

목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	
원칙	적시성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 지원
	종합성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 회복 지원
	책무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교육회복에 총력
추진 방향	•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율 추진 •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집중지원(1단계)하고 결과 분석 후 '23년(2단계) 추진 검토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는 신체·언어·정서·사회성이 발달하는 중요시기에 있는 유아들에게도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가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와 쉼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아의 정서·심리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놀이교실 등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의 기회가 부족했던 직업계고 학생(졸업생 포함)에게는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8개 기능사 자격시험을 기존 4회에서 5회로 추가하는 한편,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 보조강사로 배치하여 취업 전까지 업무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탈북·장애학생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해서는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상황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입형(한국어교육 등 초기 지원), 적응형(교과학습 지원 등), 성장형(이중언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단평가를 내실화하는 한편,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학교 수업 문자·수어통역 지원을, 지체·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언어·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그 밖에도 교육부는 2학기 등교확대와 유사 감염병 유행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밀집도 완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중이다. 우선, 올 2학기에 1,155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응급조치로 특별교실 전환, 모듈형 이동식 교실 등을 설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학교 신·증축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2024),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학급 증축 등에 따른 교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중단없는 교육을 위한 등교·원격수업의 병행과 감염병 억제를 위한 방역 등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에 따른 심리·정서적 소진을 겪는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고,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원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03

한국판 뉴딜,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교수·학습 혁신

정리_편집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은 기존의 학교공간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성찰을 촉발하였고, 이는 교육계의 "미래교육 대전환" 논의로 이어졌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학교복합화의 4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8.5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1]의 대표 과제이다.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학교는 ①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③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4대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 학교는 건축가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미래학교는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공간, 학교 모습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모습의 학교가 만들어진다. 미래학교는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소수 선택과목에 대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국내외 학교 간 실시간 협력학습과 학교생활 중에 경험하고 깨우치는 기후·환경교육,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사업 1년 차인 올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484개교, 702동을 선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전국의 유치원 1개원(1개동), 초등학교 270개교(406개동), 중학교 88개교(110개동), 고등학교 124개교(184개동), 특수학교 1개교(1개동)를 선정하였으며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새 단장을 완료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향후 사전기획 후 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미래학교로 재탄생한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사업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용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래학교 사업 2년 차인 2022년에는 약 321개교(435개동)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무선망 구축,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지원

한편,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역점사업으로 학교 무선망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 일반교실 등 31만 교실(전체 교실 대비 79%)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38.7만 실, 전체 교실 대비 98%)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긴 것으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블렌디드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혁신이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도 교원에게 최신기종 노트북 등 PC 25만여 대를 지난 3월까지 보급하여 안정적인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무선망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에서 무선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학교 무선망 구축 현황

(단위 : 만 실)

구 분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	학습지원실	계
전체 교실 수		24.2	3.2	7.8	4.4	-	39.6
구축	2021.6. 실적	22.7(93.8%)	1.7(53.1%)	4.3(55.1%)	1.4(31.8%)	1.1	31.2(78.8%)
	2022.2. 계획	1.2	1.2	2.5	0.6	2.0	7.5
	2022.2. 누적	23.9(98.8%)	2.9(90.6%)	6.8(87.2%)	2.0(45.4%)	3.1	38.7(97.7%)

※ 2021.6. 기준 시도교육청 조사자료
※ 2021.6.에 무선망이 미설치된 일부 일반교실(5%)은 '21학년도 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사유: 석면공사 등)

1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구조가 비대면화, 디지털화되는 시기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 정책으로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을 3축으로 하여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04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단계적 이행

학점제 제도 기반 마련…전면 도입 향한 한걸음

정리_편집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일정 누적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교실을 만들 수 있고, 기본적인 성취 수준이 달성됐을 때에야 과목 이수가 인정되므로 배움의 질도 보장된다.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그간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2020년에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했고, 올해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8월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2022-2024)'을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전체 고교 61.5%로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됐다.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총 1,457개교로, 전체 학교의 61.5%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들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개인별 시간표 운영 등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의 긍정적 경험이 확산되고 있다. 학점제에 맞는 학교 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온·오프라인 융합 교실과 휴식·전시 공간, 학생 복합 생활공간, 대형 강의실 등 전체 일반계고 중 45%에 달하는 756개교에 학점제형 공간이 만들어졌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과목을 운영했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학교·교육청 단위의 노력은 지자체·대학 등 지역사회로 확장됐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과목 개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학점제를 위한 준비가 활발히 이뤄졌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에 나섰다. 먼저, 학점제의 단계적 도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수업량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도록 개정한다. 학생들의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교육청 수준의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학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교수·학습 자료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해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학점제 적용에 맞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의 얼개를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1학점의 수업량을 16회로 적정화한다. 이와 함께 필수이수 학점을 조정하고 자율이수 학점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해 공통과목을 유지하되,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전문교과 I 을 보통교과로 전환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되어 고등학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진단 평가, 학습 관리 등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보충 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 이수도 가능하게 바뀐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 준비 중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일반계고도 학점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이 구축되고 있으며, 교원 역량 강화,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 등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신산업분야의 현장 지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더불어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도 전체 고등학교의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은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과 운영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 3월까지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안내서'를 개발해 전체 학교에 보급하고, 모든 교원이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상별, 유형별 맞춤형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준비 내용

	~2021년 제도 기반 마련	2022년 운영 체제 전환	2023~2024년 제도 단계적 적용	2025년 제도 전면 적용
제도	법령, 교육과정, 지침 정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5년 고1~)
교원	고교학점제 핵심 교원 양성(~2022) 및 교원 역량 강화			
		연구·선도학교 교원 추가 배치(2022~)	새로운 교원 수급계획 적용(2023~)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5년 고1~)
학교	모든 학교의 학점제 운영 경험 축적(~2024, 100% 연구·선도학교 지정)			• 학생 맞춤형 교육 전면화
책임 교육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준비		책임교육 실행(2023~)	• 학점 기반 고교 졸업 체제 운영
공간	모든 고교 학점제형 공간 조성 완료(~2024)			

05

미래교육 100년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발족… 준비단계부터 국민 의견수렴

글 _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배경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교육이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으로 10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도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77.5%(전체 응답자 1,072명, '18. 12, 국가교육회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 : 1위 장기적 비전(전국 4,000명 대상, '20. 1, 한국교육개발원)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그간 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만 그치지 않고 독립적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17.12.~'18.9.)와 시민사회 경청회('18.10.~'18.11. 6회) 등을 통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에서도 합의문 등의 발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 유·초·중등 교육 관련 4개 단체('19.1.24.), 고등교육 관련 10개 단체('19.2.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2021년 7월 20일 마침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 구성 및 기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은 국회, 교육 관련 단체, 대교협, 지자체협의회 등의 추천을 통해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 전문가 등 21명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며,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 법률 주요 내용 >

-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사·예산 독립성 인정)
-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
  ※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학생·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 대교협 추천 1명, 전문대교협 추천 1명, 교원관련 단체 추천 2명, 광역지자체협의회 추천 1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
-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소관사무)**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수립 등 :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③ 국민의견 수렴·조정: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
-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① 국민참여위원회 : 사회 각계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설치하고, 위원은 지역·연령·성·직능 별로 균형있게 구성함
  ② 전문위원회 : 위원회 소관 사무의 자문 및 사전검토를 위해 설치 가능
  ③ 특별위원회 :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 2022년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추진상황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발족하였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긴밀히 협업하는 공동추진 체계로 운영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설립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국민 의견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하여 위원 구성, 추천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함께 정원, 예산 및 사무공간 확보, 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 인적·물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내년 7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 등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창구
(URL)
eduvision.go.kr/OpinionList.do

06

미래를 이끌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로

정리_편집실

신기술 인재 양성의 출발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별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로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원, 기자재 등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돼 지역 대학 학생들의 신기술분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8개 신기술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분야별로 7개 대학이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 교원, 교육인프라 등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공유대학 체계를 구성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총예산 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6년까지 10만 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은 마이크로전공부터 복수전공까지 수준별 학위·비학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공자뿐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K-MOOC 플랫폼에 온라인 강좌도 탑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매치업으로 쉽고 빠른 직무능력 향상

단기간 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한다면 매치업(Match業)을 활용하면 된다. 매치업이란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 직무인증과정으로, 기업과 교육기관이 연계해 핵심 직무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6개월 미만의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성인 학습자는 시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기존 매치업 사업이 운영기관별로 개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상호 연계가 부족했다면, 올해부터 K-MOOC 플랫폼으로 강좌를 통합 운영해 학습자에게 더 편리하고 탄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매치업의 모든 교육강좌를 K-MOOC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단계적 통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K-MOOC 강좌와 연계해 매치업 로드맵도 제시한다. 매치업 로드맵에는 기존의 정규과정 이외에 교양강좌와 심화 과정 등 다차원적인 강좌를 포함해 폭넓은 교육을 지원한다.

2018년 시작된 매치업은 올해로 총 9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추가된 4개의 신규 사업 분야는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다. 교육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분야에 신속히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매치업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게 된 대표기업-교육기관 연합체는 교육과정 개발비로 최대 3억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2022년 상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매치업 교육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문기술인재 요람,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시작

교육부는 올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도입을 위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마이스터대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으로, 단기 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학사와 전공심화과정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선정된 5개 전문대학은 올해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마이스터대에서는 학과 교원의 60% 이상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며, 산업 발전 속도를 반영한 실습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해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또,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사회 경험과 재직경력 등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단기직무과정 이수로 학위를 인증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활용한다. 대학-기업-지역은 전문인재 양성과 유입을 위한 선순환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올해 9월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 가능하며,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으로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신산업에 대응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돼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선정된 12개교는 각각 특화 신산업분야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혁신, 학과 개편 등 대학 전반의 혁신을 꾀한다. 지원되는 예산은 교당 10억 원씩 총 120억 원이다.

[표] 신산업 인재 양성 관련 사업

사업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매치업	마이스터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대상	전공자/비전공자 등 누구나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전공자, 재직자, 성인학습자	전공자
예산	832억 원	21억 8,900만 원	교당 20억 원(총 5개교 지원)	교당 10억 원(총 12개교 지원)
사업 추진 기간	2021~2026년	2018~	2021~2022년	2021~2023년
신산업 지원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콘텐츠),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올해 신규 4개 분야)+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지능형자동차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실내건축 전시 기획,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신산업 업계 초정밀금형기술, 실감 모빌리티 융합기술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증강·가상현실(AR·VR),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팜, 스마트·친환경선박
2021년 주요 내용	•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 •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분야 교육기회 제공 • 대학-지역 간 연계·협력 확산	• 신산업 4개 분야 신규 선정 • K-MOOC 플랫폼 통합 운영 •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교류 활성화 • 학습자 자기주도학습 지원	• 단기부터 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 개편 • 일-학습 균형을 위한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조성 • 대학-기업-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인적·물적 자원 공유 • 마이스터대 제도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법 개정 및 설치·운영 규정 마련	• 전문대학의 신산업 변화에 대응 기회 마련 • 각 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법 개선 • 선정대학 대상 전문가 자문 지원 • 특화 신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기부 10주년 성과와 과제

미래사회 총체적 협력 이끌 교육기부 2.0 필요

글 _ 정우식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주무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간의 학교교육은 주로 학교의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참여 기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목적의 컨설팅단, 지역센터, 체육예술 거점대학을 운영하여 사회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입해왔다. 그리고 추진협의체와 인증제를 통해 교육기부 참여 기관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교육기부 박람회, 대상, 캠페인을 통해 교육기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기부는 기업·단체의 사회공헌과 대학생·개인의 지식·경험 전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꾸준하게 운영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활동 위주의 교육기부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교육기부 사업에 24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누적 3,172만 명이 수혜를 입는 등 양적·질적 성장과 범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EVENT
꼭꼭 숨어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 활성화 사업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한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표] 교육기부 10년의 성과

	2012년	2020년
프로그램 수	1,085개	**5,809개**(누계 30,630개)
수혜자 수	391,751명	**8,608,000명**(누계 31,721,139명)
참여기관 수	(MOU체결) 26건 / (추진협의체) -	(MOU체결) **112건**(누계) / (추진협의체) **244개 기관**
대학생 동아리 수	377개 동아리	**4,676개 동아리**(누계)
개인교육 기부자 수	501명('15년 운영개시)	**1,933명**(누계)
교육기부 인증 기관·동아리 수	62개	**623개**(누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오른쪽 사진)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협회·단체 등의 다양한 교육기부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나아가 교육기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확장 가상 세계 운영 체제(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이루어내 비대면 교육기부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교육기부 10주년을 맞아 성과 분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기부의 성과, 현주소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교육기부 2.0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교육기부는 프로그램 기부(기관이 보유한 시설·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을 제공), 장비/콘텐츠 제공(악기·실험기자재, 영화·미술작품 등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제공), 활동 지원(학생 동아리, 체험 활동 등에 차량, 보험 제공), 재능 기부(강연·멘토링·지식 전수 등)의 형태로 찾아가는 대면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사회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10년간 운영되어 왔다.

작년 코로나19의 확산은 교육기부의 주요 방식이었던 '찾아가는 대면 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온라인으로 대학생 교육기부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교육기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체계 구축을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사업 추진 등 교육기부의 전면 개편, 업무 절차 개선 등의 실무적 노력을 더했다.

교육기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제2, 제3의 코로나19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많다. 아직 교육기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교육기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동안 생각했던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01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업무 체계를 정비한다.

결코 짧지 않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교육기부는 사회 각 영역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일부는 그간 해오던 방식대로 운영되기도 했다.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정비하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습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의 사회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연한 업무 체계 구축은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교육기부 기관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0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민간과의 업무협약 등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부 역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박람회와 개인·대학생 교육기부, 체육예술 거점대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분야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기부와 진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근거로 삼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제3항에 교육기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 수렴, 유사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03 기업·기관의 사회공헌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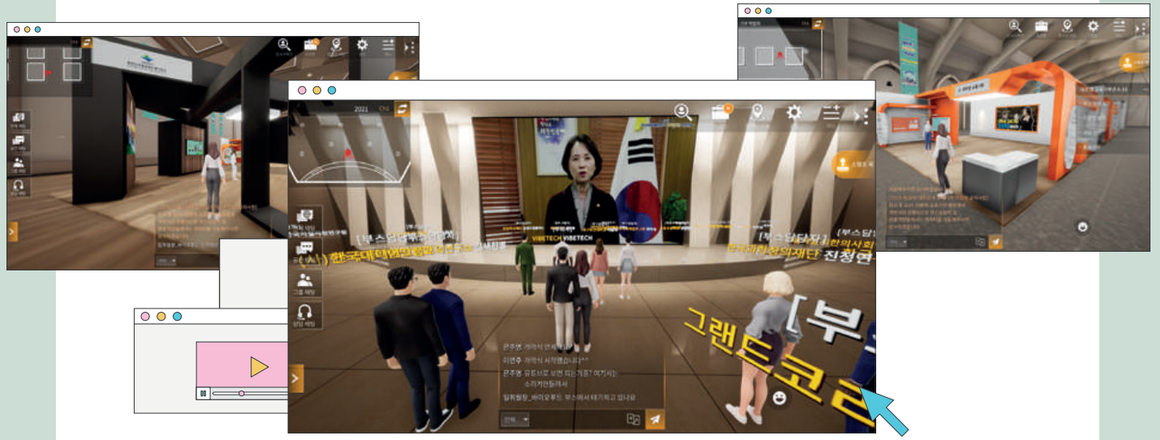
지금까지 244개 기업·기관의 추진협의체 참여, 112건의 업무협약 체결 등 교육기부에 수많은 사회자원이 활용되었다. 사업 초기 기업·기관의 추진협의체, 업무협약은 주로 교육기부에만 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기관의 노력은 교육기부를 방과후학교, 진로체험 등 교육부 내 다양한 업무와 연계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중·주말 방과후교실, 방학캠프, 대학생 멘토링, 온라인 플랫폼 등을 제공한 삼성드림클래스 사업과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예절과 소통법 등 강의를 진행한 KBS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이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례에 해당한다. 최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기관의 기부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기부가 사회공헌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관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식적인 기업·기관 참여보다는 기업·기관별 특성을 살린 의미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부의 기존 장점은 유지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한다면 교육기부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생, 사회인이 되어 기부자로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 구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협력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교육기부도 이제 비대면으로

글 _ 양지선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1월 23일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이하 교육기부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2월 2일까지 열흘간 이어진 이번 박람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관람객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교육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알리고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교육기부 10년의 동행, 함께 떠나는 10일간의 미래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약 10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참가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를 높였다.

기관·주제별 특성 살린 전시관 운영

가상 공간에 꾸며진 교육기부 박람회는 오프라인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부스가 마련돼 있고, 참가자는 가상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둘러볼 수 있었다. 교육기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로그인해 아바타를 만든 후 입장하는 방식이었다.

플랫폼 내에는 △주제관(교육기부 10주년 특별관,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관, 진로상담부스) △미래지구발전소(드론, 로봇, 인공지능, 의료, 지구 등 미래기술과 환경에 관한 진로) △일상탐구소(인문, 사회 관련 진로) △경제금융교육관(금융, 경제, 언론 등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관) △꿈꾸는 놀이터(문화, 예술, 스포츠 등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기부 광장(개막식,

교육기부 포럼, 진로 토크콘서트 등 운영) 등 기관·주제별 특성을 살린 전시관으로 구분됐다.
부스에 다가가면 해당 부스에 대한 소개와 책자 형태로 만든 설명문을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은 채팅을 통해 담당자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했다. 이외에 기관 홈페이지나 관련 유튜브 링크로 연결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메타버스로 실시간 소통, 몰입감·흥미 유발

미래지구발전소 전시관의 국립공원 진로체험 부스에서는 역사학자, 환경교육전문가, 동물학자 등 7가지 국립공원 직업군을 체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조혜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팀장은 "본래 학생들이 국립공원에 직접 방문해 활동지를 채워가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방식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가상 공간에서의 박람회 부스 참여가 처음이라고 답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고 의미 있다.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도 메타버스를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꿈꾸는 놀이터 전시관의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스에서는 현직 딜러가 실제 게임을 시연하며 카지노 산업과 관련 직업을 알려주는 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조은선 교육기획파트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관광 공기업으로서 공공성도 있고, 교육기부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처음 부스로 참여하게 됐다."라며 "학생들에게 건전한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웹페이지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한 것은 앞으로 비대면 교육기부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면 위주의 찾아가는 교육기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교육기부가 학생과 학교의 일상회복을 응원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준 참여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1 백두현 고성군수가 대흥초를 찾아 학생들의 마을숲 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고성군은 시설물 정비, 풀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고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①

경남 고성, '온 마을이 학교'

교육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상을 받은 경남 고성군은 마을교육, 진로교육에 힘쓰고 청소년자치 거점기관인 청소년센터 '온' 개관을 통해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천해 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의 협력사례를 소개한다.

글 _ 양지선 기자

경남 고성군에 있는 대흥초등학교(교장 강정) 6학년 학생들은 올해 학교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른바 '대흥 꿈길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마을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방치된 마을숲을 살리기 위한 개선점을 고성군에 건의했고, 이에 백두현 고성군수가 일일교사로 참여해 화답했다. 이후 고성군은 실제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 풀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고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마을의 문제를 지역민과 관계부서가 함께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한 학생들은 삶과 일치하는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이처럼 지역과 교육이 함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의 탄탄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특색을 내세운 교육자치가 활발해진 덕분이다.

지역주민-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의 동행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기점이 됐다.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2019년부터 2년간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해

온 고성군은 그동안 지역주민 122명을 마을교사로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과 협력수업을 지원했다. 현재 지역중심 마을학교는 11곳에 이르며, 마을 곳곳을 여행하며 배우는 '소가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학생 동아리도 활발히 운영중이다. 행복교육지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 마을에서 배우는 공부가 자연스럽게 꽃피우게 된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에도 군 차원에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개관한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진로교육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 학부모의 진로지도 역량을 올리는 아카데미, 중3을 대상으로 한 전환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성군은 올해 교육자치·지방자치의 중간조직인 고성교육재단을 새롭게 발족, 앞으로 공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교육청-지자체 협업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등 지역 특색사업 눈길



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고성군의 합계출산율은 0.83명이었다. 지역소멸 위험에 직면한 고성군은 맞춤형 특색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올해 처음 시행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이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 수당인 '청소년 꿈키움바우처'는 13~18세의 청소년에게 매월 5~7만 원씩 바우처 형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 등과 관련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노렸다. 바우처 포인트 최다 사용 가맹점은 서점, 문구점, 편의점 순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우려도 잠재웠다. 해당 지원사업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로 고성군은 올해 공공임대주택 6동도 새롭게 건립했다. 이로 인해 6세대 31명이 새롭게 전입했고, 그중 학생 13명이 영오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전교생이 18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영오초는 덕분에 한숨을 돌렸다.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과 공간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학교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방과 후 수업 다양화로 교육의 질을 높였다.

고성군은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했다. 이어 고성군 가족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호점이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4



5

2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은 마을교육, 진로교육, 청소년자치 거점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교육협력의 대표적 우수사례다.

3 학생들에게 지급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카드

4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5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

지역 내 교육 거점센터 운영

지난해 9월 개관한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은 마을교육, 진로교육, 청소년자치 거점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교육협력의 대표적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 여가, 문화, 복지, 보호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지역민과 청소년의 세대 통합을 지원한다. 건물 한 곳에 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행복교육지원센터 등이 모여있어 각 기관 간의 연계와 상호 협력이 유용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허브기관인 미래교육지원센터도 올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고성군은 폐교인 삼락초를 지역 거점형 첨단 미래교육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초·중·고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는 우드버닝 컵받침 제작, 청소로봇 제작, 3D펜 미니조명 제작, 드론 비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선발·계약 등을 맡고, 고성군에서 교육활동 강사비를 지원한 덕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한편,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은 최근 마을 단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은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학의 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지역이 새롭게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는 지역특화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억 원씩 받게 된다.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되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교육자치-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협업해온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은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확대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민·관·학이 함께 노력해 지역의 교육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함께 학교의 일상회복을 준비해요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11월 1일부터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3주간(11.1.~11.21.)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유·초·중·고 전면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에는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정상화가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분야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21 DECEMBER

EDUCATION NEWS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학교육 유연화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은 확대하고,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인공지능 융합인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이와 함께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가칭 ‘HEAD’ 대학)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및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내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취·창업 위한 교육·직업훈련 정비 대학생들이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 입학 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일 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30개교를 운영한다.

vol.473

EDUCATION NEWS

장애학생 일상회복 위한 ‘정다운 숲교실’ 운영

교육부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과 가족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으로 힘든 장애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계기가 마련됐다.

특수학교(급)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정다운 숲교실’을 시범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 그동안 101개교 1,456명이 국립춘천숲체원 등 전국 9곳 산림복지시설에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규모 등을 확대해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미래교육지구 12곳 신규 선정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2년에는 기존 21개 지구와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씩을 지원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는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구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역특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동네 교육회의’(서울 구로), ‘청주형 마을교육자치회’(충북 청주), ‘우리봄내 동동’(강원 춘천) 등 지역 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또한 ‘10분 이내 근거리 학습 공간’ 구축(인천 연수),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경남 고성), ‘품안애(愛)당진’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충남 당진) 등 지역 단위의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사 유튜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글 _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교사 유튜버에 대한 상반된 시각

2018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 교사 유튜브 랩 수익창출 징계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며 교직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이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고 징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이고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에 도달되면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본 청원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 때문인지 교육부는 2019년 3월 전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과 광고 수익 규모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교육부는 '교원 유튜버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였다. 해당 지침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이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사례 공유 등과 관련한 유튜브 활동은 겸직 신고와 허가 하에 장려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유튜브에서 교육자료를 연구해온 교사들 덕분에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교사 유튜버가 위기 극복의 선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현장에서는 교사의 브이로그('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안전장치는 있다. 하지만, 수시전형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입시 상황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촬영 동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사의 브이로그에 등장하는 학생의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실명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있다. 또한, 유튜브 촬영과 편집에 시간을 들이느라 막상 본업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동료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교사 유튜버의 활동 및 동기

교사 유튜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필자는 실제 교사 유튜버가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 들여다보았다. 구독자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교사 유튜버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교사 유튜버의 활동 내용, 활동 동기, 장애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한 교사 유튜버는 실제적이고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올리고 있었다.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실습이 필요한 과목과 관련된 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수요를 파악해서 교사들이 필요로 할 만한 자료를 올리면 교사들이 동영상을 보고 수업에 활용하

도록 했다. 또한 동영상 제작 시간과 관련한 질문에는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는 거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동영상 제작 시간에 관해서는 정규 근무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교사 유튜버들만의 암묵적인 규칙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을 향한 부정적 시각과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규칙 때문인지 몰라도 이들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개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완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기 유튜버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굴이 공개되고 본인의 자료가 공유되는 것을 즐기는 소위 '관종'(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관심종자'의 줄임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관심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 유튜브 활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사는 정숙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동기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임용시험과 교직 입문을 위한 자료를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공유하고 싶다는 동기로 시작한 경우와 양질의 교육자료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팔로워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전문가로 성장하면서 활동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우려와는 달리 금전적인 수익은 유튜브 활동의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적 수익에 대한 질문 자체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교사 리더로서의 교사 유튜버와 정책 방향

교사 유튜버는 자발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팔로워와 소통을 통한 자기발전을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사 유튜버는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직 사회를 선도해나간다는 점에서 교사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가졌다.

최근 교육 환경의 변화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역량을 요구하며, 새로운 교사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원 리더십의 관점은 교장의 지도력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로서 교사 유튜버가 보이는 리더십은 기존의 교원 리더십의 대상과 펼쳐지는 장소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들은 디지털 변화 세상에서 변화의 트렌드를 앞서 읽어내고, 교사로서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밖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교사 리더십 개발 관점에서 보면, 교사 유튜버가 교사 리더로서 교사 집단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적 시선을 반영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교직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친밀성과 진정성을 얻는 것은 교사 개인의 권위와 신뢰를 넘어 교원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유튜버 교사들은 콘텐츠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유튜브 활동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직업을 가진 교사들의 공격과 비난 댓글을 경험한 경우 교사 유튜버는 활동의 잠정적 중단, 혹은 계정 폐쇄 등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팔로워가 많아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받는다는 부담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마치 연예인처럼, 공인처럼 높은 잣대를 요구받는 것이다. 특히, '교사는 조신해야 하고 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은 교사 유튜버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개연성이 있다. 올해에만 3명의 유명한 교사 유튜버가 교직을 그만두었다. 4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달지, 8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혼공TV와 김켈리가 바로 그들이다. 물론 퇴직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직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교사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승호 외, 2020)에 따르면, 팔로워의 약 95%가 교사 인플루언서(교사 유튜버 포함)의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팔로워의 95%가 공감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교사 인플루언서, 교사 유튜버의 활동은 아직 시작한 지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이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켜봐야 할 단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은 먼저 교사 유튜버의 활동에 대해 제약하기보다는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복무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유튜버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교사 유튜버를 포함하여 SNS에서 활동하는 교사 중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기보다 외모 또는 이미지로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요인의 혼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교사 유튜버의 학교 밖 활동이 소속학교, 교원,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인식도 존재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역량이 학교, 교원,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활동과 역량을 학교 내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 원격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학교의 교사가 교사 유튜버의 긍정적인 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승호 외(2020). 교사 인플루언서의 활동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 RR 2020-06, 한국교육개발원.

도시재생전문가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발길 끊긴 개항로, '사람'을 담은 도시로 되살아나다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든 낡아지기 마련이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도시가 그 빛을 잃고 낙후되기도 한다. 도시재생전문가는 이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진 도시를 다시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제 역할이 끝난 건물들만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천 개항로에 다시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핫 플레이스'로 다시 뜨고 있다는 개항로를 찾았다.

글_양지선 기자

>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다."

손님이 찾지 않아 문을 닫은 산부인과 건물은 SNS에서 인기 있는 카페가 되고, 방치된 낡은 건물로 가득 찼던 거리에 현대적인 감성의 맛집들이 속속 들어섰다. 인천 중구에 있는 개항로 얘기다. 개항로는 본래 개항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부터 100년이 넘도록 번화한 인천의 중심지였지만, 개발에 밀려 쇠락한 도시에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몇몇 노포만 남게 됐다. 낙후된 도시에 다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건 2017년 시작된 개항로 프로젝트가 계기였다. 이창길 대표는 팀원들과 함께 개항로에 카페, 맥줏집, 음식점 등 15개의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그 속의 내용만 가장 최신의 것으로 채웠다. 덕분에 조용하던 도시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게 됐다.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은 쉽지 않다. 특히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창길 대표는 상권이 없던 시절 텅 빈 거리의 건물들을 매입했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었다. 개항로 프로젝트를 통해 15개의 가게가 문을 연 이후, 4년간 50개 팀이 새롭게 들어섰다. 상권의 형성이었다.

초·중·고를 모두 인천에서 나온 이창길 대표는 역사를 가진 개항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씩 쇠퇴해가는 도시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직접 도시를 살리기로 마음먹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트렌디한 것,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특징은 바로 노포와의 협업이다. 일거리를 잃은 장인들, 그들이 살아야 도시도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쫄면을 만든 제면소와 협업해 국수집을 열고, 인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개항로 맥주'의 글씨체는 60년 이상 목간판을 제작해온 어르신에게 부탁했다.

'도시재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라고 얘기한 이창길 대표는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참 매력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24시간 내내 개항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각을 이어간다는 그에게 도시재생은 직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한다면?

제 역할이 끝난 건물들이 많은 인천 개항로에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집어넣는 활동을 하고 있다.

초·중·고를 모두 인천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개항로는 명동보다 더 번화한 곳이었다. 극장도 무려 19곳이나 있을 정도였다. 그랬던 곳이 낙후돼버린 모습을 보니 새롭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인천이란 도시는 런던, 뉴욕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런던과 뉴욕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이뤄지고 도시가 잘 재생됐다. 방치된 발전소와 공장은 이제 전 세계인이 찾는 유명 갤러리, 카페로 변신했다. 인천도 미래에는 더 멋진 도시가 될 거라 바라본다.





1 2

손님이 찾지 않아 문을 닫은 산부인과 건물이 SNS에서 인기 있는 카페로 변신했다.

둘, 개항로를 살리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나?

사람들이 개항로에 호기심으로 한 번은 와도, 여러 번 방문할 것 같진 않았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도 베낄 수도 없는, 이곳만의 고유한 가치가 필요했다. 그게 시간과 철학이라고 생각했다. 개항로에는 노포가 많다. 급성장한 도시에서 노포는 사라지지만, 상권이 쇠락한 이곳에는 40년 이상 된 노포가 60곳 이상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이었다. 지역적 자원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베낄 수 없는 강점이 생긴 거다.

개항로라는 지역성과 브랜딩을 살린 '개항로 맥주'도 야심차게 준비했다. 개항로 맥주의 글씨체는 60년 이상 한 자리에서 목간판을 만드신 전원공예사 사장님의 작품이다. 한 달에 400개씩 목간판을 만드시던 분인데, 이제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일이 들어온다고 하신다. 맥주 포스터 모델은 페인트 가게 사장님이다. 원래 개항로에서 영화 간판을 그렸던 분인데, 2002년을 마지막으로 직업이 사라졌다. 의도치 않게 노포 어르신들이 지역재생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이제 단순히 상생의 차원을 넘어 그분들도 개항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해주신다.

셋,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영국의 노팅엄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회학 석사를 하며 유학 생활을 했다. 그때 만난 영국 친구들과 동네를 거닐다 보면 '저 집은 몇백 년 된 집이다' '우리 할머니가 살던 곳이다' 얘기하던 게 멋있고 부러웠다. 왜 우리나라엔 그런 오래된 역사를 지닌 건물을 찾기 힘들까? 무조건 새것이 좋다고 하지 않나.

부모님이 인천분이신데, 은퇴 후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가셨다. 거기 있던 귤 창고를 부수고 집으로 개조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첫 시작이었다. 이후 제주도에서 150년 된 집을 리모델링하고, 독채 펜션 모델을 만들었다. 부산에서는 100년이 넘은 병원 건물을 카페로 만들기도 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역사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다.

넷,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인천 출신들에게는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는 압박감이 있다(웃음). 나이를 먹고 보니 이제야 인천의 매력이 보이는 거다. 개항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SNS 메시지로 인천이 고향인 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는데, 한 대학생의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남자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개항로에 놀러 오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처음으로 고향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거다. 그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다. 앞으로 인천이 고향인 친구들에게 꼭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잘나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다섯, 도시재생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관찰력이 필요한데, 도시보다 사람을 더 잘 관찰해야 한다. 도시는 껍데기일 뿐이다. 현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즐겨 하는지 살펴야 한다. 도시재생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래된 도시를 보수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안에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넣는 것이 핵심이다. 개항로에도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버려진 건물이 됐다. 이곳을 개조해 카페로 꾸미니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의 안 좋은 예 중 하나가 벽화다. 뜬금없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아무 고민 없이 이제껏 해온 대로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외형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새로운 사람들을 끌기 위한 것 등 결국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다.

마지막,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시간이 흐르면 전부 재생이 필요하게 된다. 관련 직업 전망도 무척 밝을 것이다. 다만 사람들의 수준은 높아졌고, 안목과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개항로에서도 앞으로 지역의 색깔이 가득 묻어나는 미식투어와 편집숍, 호텔 등을 준비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이뤄지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도시재생과 연결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여러 도시로 여행도 많이 다녀봐야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밀레니얼의 반격>이란 책을 추천하고 싶다.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 로컬이 주목받고 있는지 등을 쉽고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TIP BOX

도시재생전문가

TIP. 1 _____ 준비 과정

도시재생전문가는 도시계획과 건축공학에 관한 지식을 함께 배워야 하는 직업으로 대학의 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 도시행정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등에 진학하면 유리하다.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지방정부에서 만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도시재생대학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평생학습교육원에서는 도시재생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관련 국가 자격으로 도시계획기사/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사, 공인 민간 자격으로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등이 있다.

TIP. 2 _____ 적성 및 흥미

기존의 도시 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하려면 공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각 도시의 특성과 공간적 위치를 고려하여 새롭고 편리한 도시를 계획하고 제시할 수 있으려면 창의력과 공간지각력이 필요하다. 도시의 지형과 건축물,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깊게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는 성향이 어울린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열두 채의 집을 품은

신안 섬티아고

2021년의 끝을 앞두고 있다. 바람은 차가워졌는데 해는 어제와 다름없는 온기로 만물을 비춰내고 있다. 찬바람을 맞으며 무심히 흘러 보내버린 듯한 지난날을 되돌아본다. 길 굽이굽이 눈물과 사연이 깃들어 온통 상처로 얼룩진 줄만 알았는데 더듬더듬 앞을 마주해온 날들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한 호흡을 골라야 할 때다. 뒤돌아보지 않기 위한 후회 없는 송별과 가슴 벅찬 만남을 위해 길을 나선다. 이별을 위해서는 나에게서 떠나 있을 필요가 있기에.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아닌 것들로부터 거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애써 홀로됨을 자청하며 섬을 찾아간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의 종지부를 찍으려 찾아가는 2021년의 마지막 여정은 전남 신안이다. 다섯 개의 섬 곳곳에 보물처럼 기도의 집을 마련해 두고 있는 신안의 순례자를 위한 섬, 섬티아고로 간다.

글_강지영 객원기자





안개로 뿌옇게 가려진 길을 더듬어 도로를 달린다. 가로등을 점으로 만들고 전조등을 호롱불처럼 만드는 뿌옇고 불투명한 길을 느릿느릿 지나온다. 안개의 터널을 관통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격리의 날들을 생각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마득함 속에서도 앞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시련을 견디고 있는 이들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묵묵히 걸어온 시간의 끝자락에 섬이 놓여 있다. 섬티아고로 들어가기 위해 송공항으로 간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1004섬 신안'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드높은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는 태양과 겨울을 담은 찬 바람 때문일까. 천네 개의 섬이 천사(天使)의 섬이 되어 여객의 가슴에 안긴다.
배에 오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뱃고동이 울린다. 잔잔한 물길과 섬을 향해 가는 배와 물거품과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긴 다리가 겨울의 여운을 더해준다. 수평선과 나란히 놓여 이어지는 7.22km의 대교는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다. 이 교량에는 '천사대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천사대교를 벗 삼아 한 시간쯤 바닷길을 달린 끝에 대기점도 선착장에 당도한다.



1. 건강의 집



2

2. 생각하는 집



3

3. 그리움의 집



4

4. 생명 평화의 집

섬티아고로 이름 붙여진 다섯 개의 섬

신안군은 2017년 대기점도와 소기점도를 포함한 다섯 개의 섬을 중심으로 예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붙여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프랑스 작가진과 한국 작가진의 손을 거쳐 나온 예배당을 잇는 순례길을 조성하게 된다. 그렇게 단장을 마친 섬길에는 2020년 2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본떠 '섬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배에서 내려서자 건강의 집(베드로의 집)이 시야를 채우고 들어온다. 파란 지붕과 하얀 벽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빛이 묘하게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는다. 산토리니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예배당으로 들어선다. 조그마한 의자와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빛이 침묵의 울림을 전해온다. 건강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일까. 좁은 공간이 전해오는 안온함이 긴장해 굳어 있던 등을 어루만진다. 아픈 시간에 맞서 싸우느라 수고했다는 손길이 남긴 여운을 머금은 채 세상에 평온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종을 울린다.
길을 따라 여정을 더듬어간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생각하는 집이라는 안드레아의 집이다. 벽 양쪽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빛과 천장의 유리 장식이 빚어내는 색과 그 밑에 놓인 우물 앞에 서서 천천히 호흡을 고른다. 오르내리는 가슴을 따라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 나가기를 거듭한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듯 느껴지는 것은 건물이 여객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뱉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리라. 왼쪽 창으로 섬과 섬을 잇기 위해 주민들이 놓아둔


5


6

5. 행복의 집

6. 감사의 집


7


10


9


8

7. 인연의 집

8. 기쁨의 집

9. 소원의 집

10. 칭찬의 집


11

11. 사랑의 집


12

12. 지혜의 집

징검다리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긴 노두길을 본다. 밀물이면 잠겼다가 썰물이면 드러나는 노두길 위로 해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역사에 감긴 시간의 태엽이 풀려나며 평온을 불러들여 온다.

열두 채의 집을 따라 떠나는 여정

그리움의 집, 생명 평화의 집, 행복의 집, 감사의 집, 인연의 집을 거쳐 이른 곳은 기쁨의 집인 마테오의 집이다. 마테오의 집은 노두길 가운데 있어 물때를 맞추지 않으면 들어가 볼 수 없다. 물이 빠진 노두길로 들어간다. 하늘과 맞닿은 바다와 바다를 가르는 노두길. 그 사이를 걷자니 바다와 하늘 사이를 지나고 있는 듯 발이 가볍게 느껴진다. 바다 위에 놓인 기쁨의 집에서 바다를 넘어다본다. 넘실거리는 물결을 보고 있자니 마음에 평온이 찾아든다. 창 너머 바다 풍경이 세사에 가려 탁해진 눈동자를 매만진다. 푸른 바다가 기쁨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깨우침을 전해온다.

길을 따라가며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열성적으로 전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문준경 전도사(1891~1950)의 이야기를 읽는다. 이념 갈등이 빚어낸 전쟁의 위험 속에서 문준경은 교인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증도로 돌아온다. 교인들을 무차별 처형하던 인민군의 총구는 끝내 문준경을 겨누고 만다. 그리하여 그녀는 끝을 맞이한다. 위험 속에서 무작정 섬으로 들어온 문준경 순교자의 여정을 그리며 소원의 집을 향해 간다. 바닷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소원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품지 말라.'라는 성경 한 구절을 읊조리며 이 시대를 아프게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마음을 전해 본다.

칭찬의 집과 사랑의 집을 지나 마지막으로 이른 곳은 지혜의 집인 가룟 유다의 집이다. 꼬여 있는 종탑 위 종을 열두 번 울린다. 섬 초입 유다의 집에서 울린 종소리가 반향이 되어 되돌아온다. 종소리를 귀에 머금으며 생각한다. 열두 채의 집을 거쳐오며 만난 것은 열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섬으로의 여정은 내 속에 깃들어 있는 유약하고 여린 나를 만나는 길이자 쓰러지기 직전의 나를 품어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열두 채의 집에서 채우고 비운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었다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날, 인류는 우주로 떠나게 되었다

글 _ 지웅배 연세대 은하진화센터 연구원



> 천문학은 수억 광년 먼 거리에 떨어진 별과 은하의 원리를 지상으로 옮겨오는 여정이다.

1666년 영국의 링컨셔 인근의 한 시골 마을 들판에 어린 소년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의 머리 위에 있던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졌다. 소년은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진 사과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다.

우리는 뉴턴이 정수리에 사과를 얻어맞고, 사과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뉴턴이 실제로 사과를 얻어맞은 적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많은 역사가들은 이 일화가 뉴턴의 제자들이 그의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덧붙인 일종의 'MSG'라고 생각하고 있다.

달은 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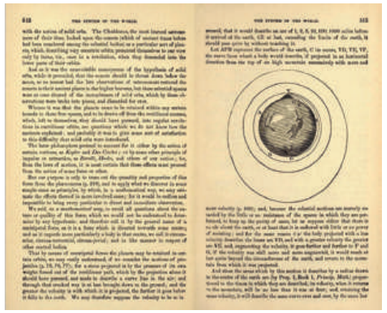
실제로 뉴턴이 한 고민은 단순히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가 아니었다. 그가 남긴 <프린키피아>를 보면 뉴턴을 고민하게 만든 진짜 범인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달'의 정체였다. 뉴턴은 사과처럼 작고 가벼운 물체도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떨어지는데, 대체 어떻게 훨씬 거대하고 무거워 보이는 달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렇다면 뉴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 그는 한 가지 재밌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대포를 하나 세우고 옆으로 대포알을 발사한다고 생각해 보자. 대포알을 느리게 발사하면 얼마 안 가서 산기슭 바로 앞에 툭 떨어질 것이다. 대포알의 발사 속도를 점점 빠르게 올리면 대포알은 더 멀리까지 둥근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제 둥근 지구 위에 솟은 산에서 대포알을 발사하는 모습을 지구 바깥 우주 공간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자.

처음에 대포알이 느리게 발사되었을 때에는 역시 둥근 지구 위에서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코앞에 떨어진다.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대포알을 쏠 수 있다면, 둥근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는 대포알의 궤적이 영원히 지구 표면에 닿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마치 지구의 달이 영원히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달은 계속 지구의 중력에 붙잡힌 채 아래로 떨어지는 중인 것이다. 다만 달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고 아주 크게 둥근 궤도를 그리고 있어서, 동시에 둥글게 휘어진 지표면에 영원히 닿지 않을 뿐이다.

뉴턴의 사고 실험, 그리고 탄생한 인공위성

이러한 대포알 사고 실험을 통해 뉴턴은 중력과 달의 움직임에 대한 완전히 다른 통찰을 제시했다. 이전까지 달은 단순히 '공중에 떠서 지구 주변을 맴도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뉴턴은 달이 사실 지표면을 향해 '영원한 낙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턴의 놀라운 통찰은 결국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날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땅에 영원히 닿지 않고 계속 지구 주변을 맴도는 궤도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아주 빠르게 던질 수 있다면, 그 공은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담겨있는 대포알 사고 실험의 내용

영원히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변을 맴도는 궤도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뉴턴이 했던 이 사고 실험 속 대포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 물건과 아주 비슷하다. 바로 인공위성이다. 얼핏 보면 지구 주변의 허공에서 빙글빙글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인공위성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계속 지구의 중력에 붙잡힌 채 지표면을 향해 영원한 낙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날릴 수만 있다면 인공적으로 지구 주변을 맴돌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뉴턴이 발견한 이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원리를 활용해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가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현재 4,500개가 넘게 작동 중인 인공위성들이 지구의 하늘을 가득 덮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의 아름다운 현대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천문학, 인류를 더 넓은 우주로 초대하다

350여 년 전 한 몽상가는 머리 위에 떨어진 사과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땐 이 몽상가가 던졌던 질문이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과는 당연히 땅으로 떨어지고, 달은 당연히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왜 고민을 하는 걸까?"라고 걱정하며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망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소년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뉴턴도 "대륙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경기를 생중계로 보고 싶다."던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다."라는 식의 실용적인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런 식의 고민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으니 말이다. 그는 정말 단순히 왜 달은 사과와 달리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지를 궁금해했다. 어쩌면 당시 기준으로는 쓸데없어 보였을 이 질문은 결국 350여 년이 지나 인류가 우주 시대를 살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 1666년 어느 여름날 영국의 한 시골 마을 땅에 떨어진 사과의 씨앗은 결국 35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인류를 우주까지 이어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다.

지구 바깥의 머나먼 별과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은 과연 인류의 일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뉴턴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장 멋진 답변이 될 수 있다. 천문학은 수억 광년 먼 거리에 떨어진 별과 은하의 원리를 지상으로 옮겨오는 여정이다.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던 인류를 위해 신의 불씨를 지상으로 훔쳐 왔던 프로메테우스처럼, 천문학자들은 아무리 그 과정이 길고 고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주의 원리를 지상으로 옮겨오기 위해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다.

별과 은하를 바라보며 알아낸 한 톨의 지식이 바로 당장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다. 그 한 톨의 지식은 머지않은 미래 또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 인류를 더 넓은 우주로 이끌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다. 21세기 천문학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사과 속에는 또 어떤 나무의 씨앗이 숨어있을까?

HONORARY REPORTER

FOCUS 01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로 탐구생활', 나도 이제 예술가!

이윤정 명예기자

아이들이 팔과 다리, 온몸을 활용해서 저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한데 뭉쳐 낑낑 애쓰기도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마에는 연신 땀방울이 흐른다. 세종 연봉초등학교(교장 신미숙)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로 탐구생활' 수업의 한 장면이다.

연봉초에서는 10월 2주부터 5주까지 총 4주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술로 탐구생활'은 학생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생들을 둘러싼 다양한 삶의 주제를 예술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프로젝트로서 학교(교사)와 예술가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연구)하고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연봉초의 경우, '예술로 틔우는 아홉 번째 가을'이라는 주제로 인문학(교과)과 무용,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예술 교과를 융합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 12차시로 구성한 이번 프로젝트는 1-3차시 학생들이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 속 한 장면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 4-6차시 본교 중점교육인 '존중'과 연계한 비유카드를 찾아보고 존중을 담은 상황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 7-9차시 교실 밖으로 나가 가을 하면 떠오르는 문구 적고 가을풍경 촬영하는 활동, 그림자를 활용한 가을 신체표현 활동, 10-12차시 학생들이 동시를 직접 지어 나만의 책과 머그컵을 제작하는 활동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연봉초 중점교육(존중교육)과 연계한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이 구상되었다.

'예술로 탐구생활'을 계획했던 이재은 예술강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많은 협의를 통해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업부분을 조율하고 학생들이 좀 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신체표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봉초 송효진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예술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예술활동 수업이 되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전문가들을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욱 교육과정이 풍부해질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학교-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무용,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예술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FOCUS 02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생존수영 교육을 허투루 할 수는 없죠!

최혜정 명예기자

은석초등학교(교장 류화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1월 8~9일 이틀간 생존수영 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한생존수영협회 소속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로 와서 지도해 주었다. 생존수영이란 예기치 않게 물에 빠지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력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물에 떠 있도록 하여 살아나는 방법을 배우는 수영법이다. 아울러,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위험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다만 올해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영장이 아닌 교실과 강당에서 이론과 지상 실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론교육으로 생존 방법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상 안전사고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상황상 수영장이 아닌 교실에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했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최대한 실기 중심의 방법을 활용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 착용 방법, 구조 요청법 등을 배웠으며 실제 위급상황을 가정하고 대처해보는 상황 중심 활동을 하면서 실감 나게 학습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몸에 맞게 끈을 조절하며 직접 구명조끼를 입어 보고, 올바른 착용법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착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보이면 서로 도와주면서 학생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서 학생들이 예전처럼 실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FOCUS 03

가을은 수확의 계절? 아니 수학의 계절! 중학 수학 학습 지원 플랫폼 '온중학교' 개설

양만주 명예기자

'온중학교'가 중학생 수학 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온중학교'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 전과목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온학교'의 모델을 그대로 중학교로 옮겨 체계적인 수학 학습 지원을 위해 구축된 중학교 실시간 원격 수학 학습 플랫폼이다.

온중학교에서의 '온'은 전체, 전부를 뜻하며 동시에 따뜻함을 뜻하는 한자 '온(溫)', 온라인(On-line)에서의 온(O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온중학교'는 따스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으로서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따로 로그인 필요 없이 기초 및 심화 수준별 수학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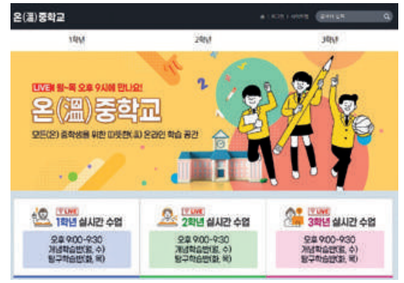
포털사이트에 '온중학교'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학년별 수학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 가능하다. 유튜브 검색창에 1학년은 '온중학교1', 2학년은 '온중학교2', 3학년은 '온중학교3'을 입력하면 '온중학교' 수업을 만나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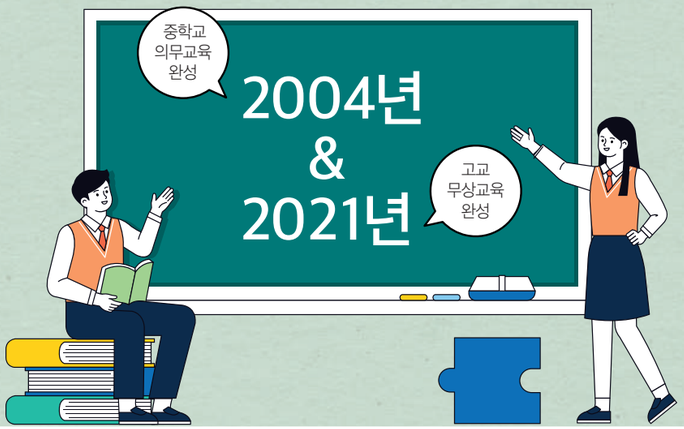
'온중학교'는 수학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지는 '개념학습반'과 심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탐구학습반' 2종류로 나누어 편성하여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매일 저녁 9시부터 30분간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며, 개념 학습반은 월·수요일, 탐구학습반은 화·목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 홈페이지의 수업 계획표를 통해 매일 이루어지는 수업의 전체 커리큘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수업은 수업계획표에 따라 진행되며, 혹시나 수업을 놓치더라도 다시보기를 통해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온중학교' 운영에 앞서 중등 수학교사 54명으로 이루어진 학습지원단을 구성하고 2회에 걸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사전 연수를 마침으로써 '온중학교'의 발판을 닦았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온학교', '온중학교' 수업 콘텐츠와 과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실시간 수업 및 쌍방향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 맞춤형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와 과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수포자에 대한 걱정과 등한시 되고 있는 기초학문에 대한 우려를 '온중학교'에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004년'과 '2021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기억될 의미 있는 해이다. 2004년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2021년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해로 이는 초·중·고 교육에 있어 공교육의 완성을 뜻하며 헌법상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과 교육법으로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1954~19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됐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됐고, 이듬해 전 학년에 적용됐다. 이어 1992~1994년에 읍·면 지역 전 학년까지 혜택이 돌아갔으나 재정 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시행을 미뤄오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다.

이후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2013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민간 기업 자녀 학비보조 등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반면, 서민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7년간의 논의 끝에 2019년 4월경 당·정·청이 단계적 시행에 합의하면서 2019학년도 2학기에 고3 49만 명에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고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고1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기 정착에 힘써왔다. 그리고 20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 126만 명의 학생들이 1인당 연평균 160만 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상당의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드디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 의무교육: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
* 무상교육: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10.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교육부